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요소의 상징성 연구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가정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Symbolism Shown by the Costumes in the Portraits of Elizabeth I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me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clear the symbolism expressed by the gorgeous costume elements in the portraits of Elizabeth I. After English paintings in 16th century and the portraits of Elizabeth I being investigated in view of its characteristics, the symbolism in the costume of the portraits was studied in analysis.

The flowers, the pearls and the sieve denoting a pure virgin predominantly appeared, snake for discretion and wisdom, phoenix for eternal youth and renewal, pelican for motherhood, and eyes and ears for almightiness and sound judgement as an utmost power was found. The color was mainly of black or white and sometimes of these two mixtures. The white means a purity and black, eternity and the mixture of them signifies a virtue of purity.

This thesis may help people understand the gorgeous costume of Elizabeth I, not as an external extravagance, but as an internal emblem or signs delivering its specific significance.

KEY WORDS : Elizabeth I, symbolism, portraits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46, Fax : 0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I. 서론

엘리자베스 1세(1533~1603)는 1558년부터 1603년 사망할 때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한 강력한 군주로서 현재와 같은 부강한 영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영국 왕 중한 명이다. 또한 통치자로서 뿐만 아니라 패션에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여왕으로서 예술애호가로서 영국문화와 종교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패션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당시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이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사상을 꽃피운 나라들로서 르네상스 복식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보다 뒤늦게 르네상스를 받아들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식에 있어서도 재단법이나 봉제법이 낙후되어 있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여왕은 여타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이들을 추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탈리아인이나 프랑스인 의복제작자를 고용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복제작자는 영국인이었고, 단지 외국의 발전된 기술만을 받아들여 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전된 의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Arnold 1988a)

엘리자베스 시대의 궁정 분위기는 피할 수 없는 비극과 정치적 음모에도 불구하고 밝고 명랑하였다.(Ferguson 1948) 궁정인들은 학문과 미술, 특히 시와 음악과 춤에 대한 취미를 개발하였고, 화려한 복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였다. 당시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엘리자베스 시대 궁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걸치레와 화려한 의식을 좋아한 것이었다.(Badawi 1981) 그러나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반드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인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인 이미지 즉, 상징으로 나타내기를 즐겨하여 문학과 시, 연극, 복식 등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 화려한 복식의 이면에 내재된 복식요소의 상징성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당시의 패션 리더였던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요소를 중심으로 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46년부터 1600년까지 많은 내, 외국인 화가들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당시의 영국궁정회화

는 유럽의 궁정회화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묘사된 의복과 보석 등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연구방법은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6세기 영국회화의 특징과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요소를 상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상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요소의 상징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16세기 영국회화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16세기 영국 회화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영국에 들어와 활동하였으며 이들이 영국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시기는 외국인 화가들의 영국 도착으로 정의 되는데, 1532년 Hans Holbein의 런던 도착을 시작으로 1632년 Anthony Van Dyck의 도착으로 끝나게 된다. Holbein 이후 수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으로부터 영국에 들어왔다. 당시의 교사이자 예술가인 Henry Peacham은 이 시기의 영국화단이 저조한 이유는 귀족과 군주들이 외국인 화가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Hearn, 1995)

이에 반해 당시에 활동하던 영국인 화가로는 Nicholas Hillard, Issac Oliver, George Gower, Sir William Segar, Robert Peake, William Larkin 등이 있었다. 현존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는 주로 이 영국인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Peacham의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이 시기 영국화단의 경향이 국내 화가들을 외국에 유학보내 유럽궁정회화를 배워 오게 하기보다는 이미 훈련된 외국의 화가들에 의존하려는 손쉬운 경향이 강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서 16세기 영국회화의 선구적인 연구는 Roy Strong에 의한 'The English Icon: Elizabethan and Jacobean'(Strong 1969b)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는 385점의 Tudor와 Jacobean 시대의 회화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약 70여 점의 작품만이 화가의 사인이 있거나 화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고 나머지 작품의 분석에는 오로지 숙련된 육안에 의한 전문가적인 판단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작품들은 'attributed to ~' 라고 하여 화가를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6세기 영국회화는 화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도 화가의 사인이 없는 작품이 많아서 회풍의 분석에 의해 화가를 추정하고 있다.

당시 회화의 캔버스 역할을 하는 바탕 재료는 참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패널 위에 두 겹의 초벌칠을 하였는데 한 겹은 아교를 섞은 분필가루를 두껍게 바르는 것이었고 이 위에 건조유(drying oil)에 섞은 백납을 얇게 덧발랐다. 이 초벌칠 상태는 현재까지도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백납의 초벌칠 위에 검정색 크레용이나 흑연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초상화의 경우 얼굴의 윤곽과 눈, 코, 입을 그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하고 육안으로도 원래 그린 밑그림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손, 장신구, 의복을 그린다. 이때 그려진 몇 개의 선은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채색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기도 하고, 커다란 진주 등의 장신구의 표현을 위해서는 초벌칠한 백납부분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자세한 의복의 자수, 문양, 레이스, 보석 등이 그려진다.(Hearn 1995)

마지막이 채색단계로 여기에서 화가가 선 묘사를 즐기는지 음영을 넣는 것을 즐기는지에 따라 화가의 회화 특성을 알 수 있고 사인이 없는 작품의 경우에는 화가를 추정할 수도 있다. 의복의 채색은 먼저 주된 의복색을 전체적으로 칠한 다음 세부장식의 채색으로 들어간다. 이 시대 초상화에 묘사된 인물의 포즈와 평면적인 의복 문양의 표현은 다소 중세적인 요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법은 현대적이고 표현은 보다 회화적으로 발달하였다. 좋은 예가 엘리자베스 1세의 'The Phoenix Portrait' (그림 3 참조)로서 여기에 묘사된 금사 자수의 표현에는 금이 섞인 메탈사를 사용하지 않고 불투명 안료(opaque pigment)를 사용하여 보다 회화적으로 금사를 표현함으로써 회화의 발달상을 보여주고 있다.(Hearn 1995)

2.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특징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헨리 8세의 재위 시절에 그려진 여왕의 초상화는 그 수가 매우 적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를 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가 왕위에 오르고 혼담이 오가면서부터는 그 수가 늘어났다. 가장 최초의 그녀의 이미지가 확실히 드러난 회화는 'The Family of Henry VIII' (1543~7)인데, 이는 초상화가 아니다. 초상화로는 1546년 그녀의 나이 13세가 되던 해에 그려진 'Elizabeth I when Princess'이다.(그림 1 참조)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는 여왕의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해 1563년 William Cecil 경이 정한 규칙에 따라 초상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이 방법은 실제적이고도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군주의 공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확산시켰으며 수많은 화가들이 하나의 오리진널 디자인을 기초로 여왕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급기야는 1596년 'A Privy Council'에서 여왕의 부적절한 초상화는 발견하여 없애도록 명령함으로써 현존하는 여왕의 초상화들은 화가의 특성이 남지 않게 되었고 누구의 작품인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왕이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초상화 또한 웅장해지게 되었지만, 표준형 패턴에 맞추어 그려진 초상화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얼굴로 묘사되었다. 45도 각도로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 여왕의 얼굴은 거의 모든 초상화에서 예외가 아니며 얼굴표정도 모두 같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름과 세월의 흔적조차도 배제된 채로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여왕의 나이 67세인 1600년에 그려진 'The Rainbow Portrait'이다.(그림 12 참조)

여왕의 외모에 대한 당시의 몇몇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557년에 방문한 베네치아 대사 Giovanni Michiel은 "여왕의 얼굴은 잘 생겼기보다는 예쁘고 키가 크며 신체의 비례가 잘 갖추어져 있다. 피부는 약간 검지만 곱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고 기록했다. (Hearn 1995, Arnold 1988a) 이외의 많은 기록에는 여왕이 그녀의 길고 가는 손을 보여주기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는 초상화에 묘사된 그녀의 손을 보아도 알 수 있다.(Strong

1963a) 어느 초상화에서든지 그녀의 손 묘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그림의 구도에 있어서도 손이 보이는 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든 이후의 여왕의 외모에 대한 묘사로는 1585년 Lupold von Wedel에 의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여왕의 외모보다는 주로 전체적인 여왕의 옷차림에 치우쳐 있다. 이 이후의 것으로는 1597년 프랑스 대사였던 Sieur de Maisse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여왕의 얼굴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보였으며 길고 가름한 얼굴로, 치아는 불규칙했다. 말이 빨랐으며 큰 키에 균형 잡힌 신체로서 어떤 행동이든 우아하고 위엄있게 보였다." (Arnold 1988a) 1598년 Greenwich 궁전에서 여왕을 알현하고 그 느낌을 쓴 독일인 법학자 Paul Hentzner의 기록에 의하면 "여왕의 얼굴은 긴 타원형이며 피부는 곱지만 주름이 있고 검고 작은 눈은 온화하다. 코는 약간 굽었고 입술은 얇다. 귀에는 매우 큰 진주귀걸이를 달았고 붉은 머리의 가발 위에 작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모든 영국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드러나 있었고 여기에 정교하게 장식된 목걸이가 장식되어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Wilson 1949) 1599년의 Thomas Platter의 기록도 위의 기록들과 거의 유사하다. (Razzell 1995)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든 이후의 여왕의 초상화에서 얼굴에 주름이 묘사된 경우는 거의 없다.¹⁾ 이는 'A Privy Council'의 여왕의 초상화에 대한 제재가 매우 실제적이고 엄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왕실 화가였던 George Gower의 통제도 상당히 유효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요소 분석

엘리자베스 시대인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인 이미지 즉, 상징으로 나타내기를 즐겨하였다. 문학과 시, 연극, 일상생활에 내재된 이 상징들은 복식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Ashelford 1988a) 본 연구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제작 연대순으로 살펴

보고 그 복식요소에 내재된 상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Elizabeth I when Princess

'Elizabeth I when Princess'는 현존하는 최초의 여왕의 초상화로서 엘리자베스 1세가 공주시절인 13세 되던 해에 그려진 것이다. 이 초상화는 그녀의 아버지인 헨리 8세를 위해 원자궁에서 그려진 것으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우아한 엘리자베스는 빨간색(crimson) 가운(gown)을 입었고, 탈·착 가능한 언더 슬리브와 페티코트에는 금사로 수 놓여진 같은 소재의 옷감이 조화되어 있다. 소매 끝에는 가운의 안에 입은 슈미즈(chemise)의 커프스가 보인다. 이 초상화의 엘리자베스는 공주로서 성장을 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가운데 사용된 빨간색 브로케이드는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성숙하게 보이게 하며 또한 그녀의 붉은 빛이 도는 머리색과 잘 어울린다.

가운의 실루엣은 전형적인 16세기 중반의 것으로 스퀘어 네크라인과 이중소매, 스페인식 파딩게일(farthingale)을 받쳐입은 중형의 스커트는 다소 형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가운의 디자인은 매우 단순한데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단순한 옷을 즐겨 입었다는 공주의 가정교사 Roger Ascham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Arnold 1988a) 전체적으로 공주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나이 어린 연약함이 느껴진다.

이 시기의 영국회화는 투명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 손가락의 위치를 바꾼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의 손에 대한 관심 때문에 화가에게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에 4개나 되는 반지를 끼었고 오른손은 특히 아름다운 손의 형태를 위해 연출된 느낌을 주며, 그림의 구도 상으로도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보는 이의 눈길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초상화에는 특별한 상징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초상화의 목적은 아버지인 헨리 8세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로 공주의 이름 다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지 가운의 빨간색은

1) 여왕의 얼굴에 주름이 묘사된 초상화는 거의 없지만, 1590년에 제작되어 Oxford의 Jesus College에 소장된 여왕의 초상화에는 나이가 든 여왕의 얼굴이 거의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색 상징에 의하면 용기 혹은 무용(Ashelford 1988a)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적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공주이긴 하지만 그녀의 왕족으로서의 긍지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Elizabeth I when Princess, attributed to William Scrots, 1546~47

2. The Pelican Portrait

Roy Strong 경이 지적했듯이 'The Pelican Portrait'는 〈그림 3〉의 'The Pheonix Portrait'와 얼굴방향만 다르고 얼굴표정과 의복, 장신구 등의 묘사가 매우 유사하다. (Strong 1995c)

〈그림 2〉의 초상화는 여왕의 가슴에 장식된 펠리컨(pelican) 장식 때문에 'The Pelican Portrait'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펠리컨은 제 가슴을 상처 내어 그 피로 새끼를 키운다는 전설이 있으므로, 이 초상화에 그려진 펠리컨 장식도 영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왕의 모성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펠리컨 모양의 보석 펜던트와 장신구 등은 귀족들이 즐겨 여왕에게 선물하던 것으로서 여왕이 받은 새해 선물목록에도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고, Hilliard가 1583~84년에 그린 또 다른 초

상화에도 펠리컨 펜던트가 묘사되어 있다.(Arnold 1988a)

가운 어깨 부분의 롤(roll) 장식과 러프 칼라(ruff collar)의 크기, 보디스(bodice)의 길이, 네크라인의 형태 등으로 보아 〈그림 3〉의 초상화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Janet Arnold(1988a)와 Roy Strong(1995c)는 이견이 없이 이 초상화가 제작된 시기를 1574~75년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 초상화에 묘사된 의복의 어깨 roll은 당시의 유행 보다 더 크고 딱딱하게 패딩이 되어 있고 다른 초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색배합에 주목된다. 보디스와 어깨 롤, 스커트 부분에 사용된 빨간색 벨벳과 소매와 가슴의 파트렛(partlet) 부분에 사용된 얇게 비치는 흰색의 론(lawn)은 강렬한 색배합과 더불어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적절히 사용한 예를 보여준다.

벨벳 부분에는 많은 진주가 기하학적으로 장식되어 있고 흰색 론 부분에는 꽃무늬가 black work로 장식되어 있는데 정형화된 꽃이기 때문에 어떤 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상징을 찾기는 어렵다. 단지 왼쪽 가슴부분의 빨간색 장미는 Tudor 가의 장미로서 여왕의 혈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The Pelican Portrait
Nicholas Hilliard, 1574~5

색에 있어서 <그림 1>의 빨간색은 밝은 톤(crimson)이고 <그림 2>의 빨간색은 어두운 톤(red)이지만, 밝은 빨간색과 어두운 빨간색과의 색 상징이 특별히 다르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둘 다 상징에 있어서는 용기, 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The Phoenix Portrait

'The Phoenix Portrait'는 여왕의 가슴에 장식된 불사조(phoenix) 펜던트 때문에 'The Phoenix Portrait'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작품 역시 William Cecil 경이 정한 여왕의 얼굴 패턴에 맞추어 그려진 것으로 많은 Hilliard (1547~1619)의 작품처럼 제작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복식사가 Janet Arnold는 복식의 형태로 보아 1575년에서 157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바로 전해에 그려진 여왕의 'The Pelican Portrait'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묘사된 여왕의 복식과 <그림 3>에 묘사된 복식의 유형이 거의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Arnold 1988a)

그렇다면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의 여왕의 나이는 42~43세로 추정된다. 여왕은 오른손에 빨간색 장미를 들고 있는데 이 장미는 Tudor 왕조의 상징임과 동시에 그녀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의 상징이었다. 가슴에 그려진 불사조는 1570년대 엘리자베스 1세의 상징이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 산다는 이 새의 전설에 의하면 수백만년 만에 한번씩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 속에 던져 태운 다음 그 재 속에서 새로운 젊은 새로 태어난다는 내용으로 마치 나이가 들기 시작한 여왕의 소망-새로움, 영원한 젊음, 독신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사용된 의복의 색은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으로 Ashelford에 의하면 여왕의 순결을 상징하는 배색이라고 한다. 이 근거는 1564년 스페인 대사 Don Diego Guzman da Silva에게 여왕이 자신의 선호색은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 배색은 여왕의 순결의 상징임과 동시에 당시 궁정인들에게는 여왕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널리 유행하던 배색이었다.(Ashelford 1988a) 또한 검정색과 흰색의 새틴이나 벨벳은 진주, 금자수, 금장식, 금 에나멜 장신구 등의 훌륭한 배경으로 매우 장식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The Phoenix Portrait
 Nicholas Hilliard, 1575~6

4. The Sieve Portrait

'The Sieve Portrait'는 여왕이 50세 되던 해에 그려진 초상화로 왼손에 순결의 상징인 여과기(조리: sieve)를 들고 있다. 이 여과기는 Petrarchy의 "순결함의 승리"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로마의 베스타 여신에게 몸바친 처녀 Tuccia가 그녀의 순결함을 여과기에 담은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김으로써 증명한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순결함의 상징임과 동시에 지혜와 통찰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내면에는 여왕의 영민함과 함께 그녀가 이른 훌륭한 통치는 바로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함으로써 이른 결과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Hearn 1995)

이러한 상징은 초상화에 사용된 색의 상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왕이 착용한 단순한 검정색 가운과 이 위에 두른 흰색의 베일, 러프 칼라, 커프스의 검정색과 흰색의 배색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왕의 순결함의 상징이었다.(Ashelford 1988a)

또한 두줄의 진주목걸이와 커다란 물방울 모양의 진주가 달린 브로치, 진주장식의 관 등은 진주자체가

지닌 상징성 -순결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초상화의 배경에 그려진 화려한 기둥은 제국주의의 이미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편의 지구에는 서쪽을 향한 배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신세계로의 영국 세력의 확장을 의미한 것이다.(Hearn 1995)



〈그림 4〉 The Sieve Portrait, attributed to Cornelius Ketel, 1580

5. The Welbeck or Wanstead Portrait

‘The Welbeck or Wanstead Portrait’에서 여왕은 평화의 선구자로서 묘사되었는데, 오른손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발 밑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칼을 밟기 직전의 상태이다.

머리에는 진주와 보석이 장식된 관을 쓰고 상당히 직경이 커진 러프 칼라와 양 가슴을 가로지르는 수평의 가슴장식(carcanet), 거들을 하고 있다. 단순한 디자인의 흰색 새틴 가운데는 연분홍색 장미와 빨간색 별꽃, 파란색 유리지치, 아마초, 팬지 등의 사실적인 꽃무늬가 드문드문 자수장식 되어 여왕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고 소매에는 러프 칼라와 조화되는 커프스를 장식하였다.

어깨에는 Tudor 가의 장미가 장식된 맨틀(mantle)을 둘러 나이가 든 초로의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맨틀의 가장자리에는 뱀 자수문양을 둘러 여왕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가운을 더욱 위엄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은 앞 중심에 수직으로 장식된 애글릿(aglets, froggings, toggles)인데 이는 폴란드 스타일로서 16세기 가운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밈 형태이다.(Breward 1995) 이러한 복식의 유형으로 보아 이 초상화는 1580년에서 158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복식사가들은 추정하는데,(Hearn 1995) 이 초상화에 그려진 여왕의 이미지가 1585년에 그려진 ‘The Ermine Portrait’(Hatfield House 소장, 〈그림 6〉 참조)의 여왕의 이미지와 유사하고 또한 〈그림 4〉에 묘사된 여왕의 얼굴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583년에서 1585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가운의 흰색은 여왕의 순결을, 맨틀의 검정색은 여왕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The Welbeck or Wanstead Portrait, attributed to Marcus Gheeraerts the elder, 1580~5

6. The Ermine Portrait

이 초상화에서 여왕은 폴란드 스타일의 검정색 벨벳 가운을 착용하고 왼쪽 팔 위에 흰담비를 올려 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 흰담비 때문에 초상화의 명칭이 'The Ermine Portrait'가 되었는데, 영국에서 흰담비의 털은 순결, 공평의 상징으로 많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의 복장에 쓰이고 있다.(The Random House Dictionary 1991)

1558년 엘리자베스 1세의 대관식 복장에도 흰담비 털로 안을 댄 맨틀을 두르고 있는데 이는 여왕의 순결과 만인에 대한 공평무사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폴란드 스타일은 가운 앞중심에 장식된 에글릿 여밈에 의해 그 특징을 보이는데, 1575년에 그려진 'The Danley Portrat'과 1580-5에 그려진 'The Welbeck or Wanstead'에 묘사된 가운에서 유사한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폴란드 스타일은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로서 상당히 폭 넓게 착용되었다.(Arnold 1988a)

<그림 6>의 가운데는 검정색 벨벳 위에 금사의 수와 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앞중심의 여밈부분에도 금사로 만든 브레이드와 끈, 보석 단추 등이 달려있다. <그림 5>와 <그림 6>의 초상화는 가운의 형태와 소매의 크기, 러프 칼라의 크기 등으로 보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The Ermine Portrait, attributed to William Segar, 1585

7. The Armada Portrait

'The Armada Portrait'는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른 기념으로 제작한 세 작품 중 하나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그림 7>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군주로 묘사되어 있다. 엘리자베스의 오른손은 지구의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 손은 아메리카 대륙을 쥐고 있다. 이는 영국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신세계로 진출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작품에서도 여왕의 포즈와 의복, 장신구는 모두 같다. 다른 초상화도 마찬가지로 이 초상화는 여왕을 직접 보고 그렸다고보다는 여왕의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한 시종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거나 스케치한 다음 각 화가의 화실에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Arnold 1988a)

여왕의 표정과 자세는 매우 근엄하고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의복에는 많은 양의 보석과 리본, 자수가 장식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여덟줄의 진주 목걸이와 어깨넓이에 달하는 러프 칼라, 커다랗게 부풀린 드림형의 스커트 볼륨은 당시 영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 초상화에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의 볼륨이 매우 크고 과도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는 실제의 복식 크기라기보다는 과장된 복식표현으로 보여진다.

보디스는 앞트임(front-fastening)이고 보디스의 끝은 극단적으로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Breward에 의하면 이 포인트 부분에 늘어진 진주 펜던트는 여왕의 처녀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Breward 1995) 또한 소매와 보디스가 연결되는 부분의 윙(wing)은 진주와 보석이 달린 리본으로 장식되었으며 특히 이 리본에 사용된 직물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수입한 이카트(ikat) 직물을 사용한 것으로 다른 두 초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다. 흰색 새틴 소매는 페티코트와 같은 소재로 매치되었고 여기에 금사로 빛나는 태양(suns-in-splendour)을 수놓아 중앙에 보석을 달았다.

일반적으로 궁정복식은 보통 복식의 변화속도보다 훨씬 느리지만 이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러프 칼라의 패션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러프 칼라의 앞중심은 과거처럼 여전히 달혀있지만 사용된 레이스는 더욱

얇고 섬세해 보이며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손목에는 러프 칼라와 매치되는 컵스가 장식되어 있다. 진주와 리본, 자수 등 다양한 세부장식은 좌우대칭구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lack 1997) 가운의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은 여왕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배경에는 1588년 7월 영국해협을 통해 침입해 온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격파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인어상이 그려져 있는데 전설 속의 인어의 역할이 선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는 마치 스페인의 필립 2세가 엘리자베스 1세를 유혹하고자 노력한 것을 암시한 듯하다. (Hearn 1995)



〈그림 7〉 The Armada Portrait, attributed to George Gower, 1588~89

8. The Ditchley Portrait

‘The Ditchley Portrait’는 몇 안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전신초상화 중 하나이면서 가장 크기가 큰 작품이다. 원래 사이즈는 이보다 전체적으로 3인치 가량이 더 컸는데 가장자리가 잘려나가면서 오른쪽 설명부분이 손상되었다.

지구의 위 영국의 지도 위에 서 있는 여왕은 그녀의 발을 Oxfordshire에 위치한 Ditchley라는 지역에 딛고

있다. 귀족인 Henry Lee 경이 Ditchley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여왕을 초대하여 여흥을 베풀 당시 제작된 초상화이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게되었다. Ditchley에서 여흥을 즐기는 동안 여왕은 많은 상징적인 회화가 장식된 홀로 인도되어졌는데 그 내용들은 그녀를 신성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Hearn 1995)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8〉의 초상화도 상징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져 왔다.

〈그림 8〉에 묘사된 엘리자베스 1세는 강력하고도 신성한 군주로서 지구를 밟고 우뚝 서 있으며, 그 배경인 태양은 그녀의 영광의 상징이고 번개는 힘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여왕의 오른쪽 귀 부근에 꽂힌 빨간색 혼천의(고대 천구의의 일종) 역시 그녀의 신성한 힘의 상징이다. (Hearn 1995)

의복은 16세기말의 영국 하이 르네상스기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형태로, 스커트는 완전한 드럼형이고, 오버 스커트는 거의 뒤쪽으로 젖혀져 있어서 앞쪽은 페티코트만이 보인다. 소매는 이중소매이고 러프 칼리는 앞중심이 갈라져 가슴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러프 칼라 뒤에 레바토(rebato: 러프 칼라 버팀대)를 받쳐 머리 뒤쪽으로 러프 칼라가 서있는 형태로, 바로크 복식으로의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가운은 흰색 실크로 제작되었고 이 위에 전체적으로 얇은 사(cypress)로 제작된 띠를 이용하여 trellis-work를 하였으며 교차되는 부분에는 장미꽃 모양의 장식을 엮고 그 중앙을 보석으로 고정하였다.²⁾ 또한 러프 칼라에는 Tudor 가의 상징인 겹장미를 장식하여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초상화에서 의복의 색은 그 상징하는 바가 매우 분명한데, 당시의 흰색은 순결, 겸손, 신뢰를 상징하는 색(Linthicum 1972)으로 16세기말 영국궁정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여왕이하 많은 궁정인들이 흰색의 의복을 착용한 예는 1600년 Robert Peake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여왕의 행차장면을 그린 회화(그림 10 참조)와 궁정을 방문한 외국사절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스페인 사절 Don Virginio Orsini가 묘사한 1600년 무렵의 영국궁정의 모습이다. “모든 궁정인들이 흰색의 의복을 입고 있었고 이 의복에는 많은 금장식과 보석장

2) 보석 혹은 보석 단추로 보이기도 한다.

식이 더해져 매우 화려하였다. 여왕은 완벽한 흰색바탕에 진주, 자수, 다이아몬드 등을 장식한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그녀가 옷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지 놀라웠다.”(Hotson 1964) 또한 앞서 언급한 Paul Hentzner의 기록에도 1598년 무렵의 궁정인들의 복식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왕이 나타난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콩알만한 크기의 진주들로 가장자리를 두른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그 위에 은사를 섞어 짙 검정색 실크 맨틀을 걸치고 있었다. 그 뒤로는 대부분 흰색 의복을 입은 아름답고 균형 잡힌 시녀들이 그녀를 따랐다.”(Holmes 1969)

이 초상화에 묘사된 가운과 매우 유사한 가운으로 1592년과 1595년 사이에 Issac Oliver에 의해 제작된 여왕의 초상화가 있다.

9. Queen Elizabeth I

〈그림 9〉의 초상화에 묘사된 엘리자베스 1세는 〈그림 8〉의 ‘The Ditchley Portrait’에 묘사된 가운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가운의 전체에 trellis-work가 되어 있는 점과 의복의 색, 러프 칼라의 형태, 머리장식, 베일, 소매의 형태, 진주장식 등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스커트의 단에 페티코트가 약간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스커트의 단처리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화가의 표현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그림 8과 9, 10〉에 묘사된 여왕의 가운은 같은 의복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서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복식에 내재된 상징성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복의 색인 흰색과 진주장식은 여왕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에는 왕위를 상징하는 십자자를 얹은 보주(寶珠, orb)를 들었고 왼손에는 왕권의 상징인 홀(笏, scepter)을 들어 전체적으로 여왕의 순결함과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8〉 The Ditchley Portrait, Marcus Gheerarts the Younger, 1592~94



〈그림 9〉 Queen Elizabeth I, Issac Oliver, 1592~95



〈그림 10〉 Detail from 'Queen Elizabeth I carried in procession', attributed to Robert Peake, 1600

이 초상화는 Crispin van der Passe와 Will Rogers에 의해 각각 부조로도 제작되었다. 부조에서는 의복은 모두 같고 배경과 여왕이 서있는 포즈의 방향만이 달라 하나의 오리지널 작품을 부조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The Hardwick Portrait

Derbyshire의 Hardwick Hall 소장의 'The Hardwick Portrait'는 여왕의 전신 초상화로서 어느 가운 보다 더 궁들여 제작한 가운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가운의 자수는 Shrewsbury의 백작부인이 손수 놓은 것으로 여왕에게 선물로 전달되었다.(Arnold 1988a)

이 초상화에 묘사된 여왕의 의복에는 수없이 많은 진주장식과 자수, 다양한 꽃 문양, 바다 괴물, 게, 물고기, 뱀, 나비, 백조, 새 등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진주장식과 꽃 문양-들장미, 백합, 팬지-은 여왕의 처녀성(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왕이 좋아한 장식과 문양이었다고 한다.(Ashelford 1996b) 러프 칼라에는 Tudor 가를 상징하는 장미를 장식하여 자신이 영국 왕실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진주장식 이외에 금장식도 있기는 하지만 진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한 사이즈의 진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신, 장갑, 왕관, 베일에 장식하였다.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뾰족한 보디스의 끝에서 리본으로 연결된 커다란 오벨리스크(obelisk)³⁾ 모양의 다이아몬드 펜던트이다. 6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오벨리스크 펜던트 밑에는 물방울 모양의 커다란 진주가 달려있고, 펜던트 자체는 빨간색 리본으로 보디스 끝에서 연결되어 핀으로 스커트에 고정되었다. 이 오벨리스크 모양은 다른 초상화에도 종종 장식되었던 것으로 어떠한 상징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오벨리스크는 원래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Aswan 지방에서 나는 붉은색 화강암으로 만든 침탑으로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집트의 사원입구에 세워졌었다.(Britannica 1997) 이것이 서구에 유입된 것은 19세기로서 이집트 정부가 정식으로 미국과 영국에 기증하였다. 영국에 기증된 것은 현재 템즈 강변에 설치되어 'Cleopatra's Needles'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6세기의 상징과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오벨리스크의 종교적인 의미도 영국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문양은 단순한 이국취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에 사용된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소매와 오버 스커트(over skirt) 부분의 장식은 〈그림 5〉의 맨틀에 장식된 Tudor 장미자수와 똑같은데 이는 러프 칼라에 장식된 Tudor 장미와 함께 여왕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오벨리스크(obelisk)는 학자에 따라서 피라미드(pyramid), 침탑(spire), 기둥(pilla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의 엠블렘(emblem) 서적인 Geoffrey Whitney의 'A Choice of Emblems'에도 이 문양이 나와있다. 학자에 따라서 엘리자베스 1세라고 주장하는 여인의 초상화에는 오벨리스크 문양이 선명하게 자수 장식되어 있기도 한다.



〈그림 11〉 The Hardwick Portrait, Nicholas Hilliard, 1599

11. The Rainbow Portrait

〈그림 12〉의 'The Rainbow Portrait'는 여왕의 나이 70세 무렵인 1603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왕의 모습 어디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⁴⁾ 의복 또한 이전의 초상화와는 다른 예외의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학자에 따라 17세기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Mackrell 1997) 당시의 특수 의상인 축제의상을 착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Ashelford 1988a)

이 무지개 가운은 1602년 여왕이 Harefield를 방문했을 때 Thomas Egerton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으로서 여왕의 의상제작자인 Willaim Jones에 의해 제작되었다.(Arnold 1988a) 비대칭의 복식 구도와 머리장식, 많은 상징적인 장식들, 이중의 러프 칼라, 거대한 베일 등은 이전의 초상화와는 다른 복식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 내재된 상징적인 의미는 이전의 초상화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이 초상화의 제목이 된 무지개는 여왕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당시에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 위에 'NON SINE SOLE IRIS - 해가 없이는 무지개도 없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즉 태양은 엘리자베스 1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강력한 통치자가 있음으로써 영국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왼쪽 소매에는 조심성과 지혜의 상징인 뱀이 수놓아져 있고, 한쪽으로 드리워진 오버 가운(over gown)에는 많은 눈과 귀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눈과 귀들은 군주의 진지전능과 분별력을 표현한 것이다.(Morgan 1994) 또한 보디스 부분의 꽃은 팬지와 백합, 들장미 문양의 자수 장식으로 여왕의 순결함을 상징한다.



〈그림 12〉 The Rainbow Portrait, Marcus Gheeraerts the younger, 1603

〈그림 12〉의 의복에 사용된 색은 흰색과 주홍색(vermillion)으로 흰색은 순결을 주홍색은 용기를 상징

4) 학자에 따라서 이 초상화를 16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무지개 가운을 여왕에게 선물한 Thomas Egerton의 기록에 1602년 8월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초상화 제작에 걸린 시간까지 고려하여 1603년으로 추정하였다. Janet Arnold도 이 초상화의 제작 년도를 160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는 색이었다.(Ashelford 1988a) 두 색의 조합에 의한 흰색/주홍색의 배색의 의미는 특별히 기록된 바가 없어 보인다.

IV. 복식요소에 내재된 상징성 분석

엘리자베스 1세는 재위기간동안 두 명의 의복제작자를 고용하였는데 한 명은 Walter Fyshe(1558~1582)이고 다른 한 명은 William Jones(1582~1603)로 둘 다 영국인이었다.⁵⁾ 1567년에는 외국인 의복제작자를 고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William Cecil 경이 당시 Paris 대사로 파견된 Henry Norris 경에게 쓴 기록에 남아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여왕은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던 이탈리아식 의복과 프랑스식 의복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프랑스인 의복제작자 -프랑스 여왕의 의복을 제작한 이- 중 한 명을 천거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 그 의복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결국 영국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의복제작 기술을 갖게 된 계기는 이미 제작된 의복을 수입해서 착용자의 신체에 맞추어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였다.(Arnold 1995b)

따라서 의복에 내재된 상징들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입된 것들이 많았다. 의복에 사용된 상징을 나타내는 기법은 주로 엠블렘(emblem)을 자수⁶⁾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보석을 장식하는 것이었다. 초상화에서는 복식뿐만 아니라 인물의 배경에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품이나 장면을 배치하여 상징을 더욱 강화하였다. 1530년 이탈리아와 155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엠블렘 관련 서적은 각각 1586년, 1591년 영어로 번역됨으로써 영국에 일반화되었고 이 엠블렘들은 의복에 자수나 그림으로 장식되었는데 모든 엠블렘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Ashelford 1988a)

엘리자베스 1세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의복에 주로 장식되었던 엠블렘은 구름, 비, 무지개, 불꽃, 태양, 별, 장미,

꽃, 뱀, 거미, 불사조, 새, 날 것(flies) 등이었다. 무지개와 비는 원래 프랑스에서 Medici 가의 Catherine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차용되어져 'The Rainbow Portrait'에 평화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다.(그림 12 참조) 태양은 여왕 자신의 상징이었고 장미는 Tudor 가의 상징이었다. Tudor 가의 한사람으로 여왕과 장미의 관계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는데, 곱장미인 Tudor 장미는 York 가의 백장미와 Lancaster 가의 흑장미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꽃은 주로 들장미, 백합, 팬지 등으로 여왕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였고, 뱀은 신중함과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오벨리스크 문양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상징을 가졌다기 보다는 이국취미에 의한 문양으로 해석된다.

장신구에 나타난 상징으로는 진주장식은 순결을, 금제 에나멜 불사조 펜던트는 영원한 젊음, 새로움, 독신자의 상징이었고, 금제 에나멜 펠리컨 펜던트는 영국민에 대한 여왕의 헌신적인 모성을,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오벨리스크 펜던트는 이국취미로 파악되었다.

의복의 소재에 있어서는 특별한 상징은 보이지 않는다. 주된 의복의 소재는 벨벳(velvet), 브로케이드(brocade), 론(lawn), 사(cypress), 새틴(satin) 등으로서 소재에 따라 다른 표면장식 기법 -자수, 그림, 보석장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정색 벨벳에는 진주장식을, 흰색 론에는 black-work를, 흰색 새틴에는 trellis-work나 그림을 가함으로서 각 소재에 가장 효과적인 표면장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단, 'The Ermine Portrait'에서 보여지는 흰 담비털는 순결과 공평의 상징으로, 여왕의 순결과 함께 만인에 대한 공평무사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색의 상징에 있어서는 배색이 될 경우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양의 상징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의 색 상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은 1526년 프랑스인 Sicile이 쓴 'Le Blason des Couleurs

5) Walter Fyshe와 William Jones 이외에 여왕의 의복 제작실에는 Arthur Middleton, William Whittell이 있었는데 이 둘은 주로 수선전문이었고 여왕의 의복을 전적으로 제작하지는 않았다. Thomas Rudwell은 여왕의 하인들을 위한 남성복을 제작하였다.(Arnold 1988a)

6) 16세기를 자수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당시의 복식에는 자수장식이 많았는데, 주로 사용된 자수는 black-work, drawn-work, trellis-work 등이었다.(Linthicum 1972)

en Armes, Livrees et Devises'인데 이 책은 1583년에 Richard Robinson(R. R. 이라는 이니셜로 기록되어 있다)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에서도 일반화되었다. (Linthicum 1972) 이 책과 당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록에 근거하여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색 상징을 분석해 보면, 검정색(black)은 불변성을, 흰색(white)은 순결을, 빨강색(red, crimson)은 용기, 무용을, 주홍색(vermillion)은 용기, 배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의 배색도 특별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전달 하는데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가장 많이 나타난 배색은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white/black)으로 이 배색이 상징하는 바는 여왕의 순결이라고 파악된다. 궁정인이 착용했을 때는 여왕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었다. 이 다음으로 많은 배색은 흰색과 빨강색의 배색(white/crimson, white/red 혹은 white/vermillion)으로 특별한 배색의 의미보다는 강렬한 색 배합을 즐겨한 여왕의 선호로 보여진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대의 복식에 내재된 상징은 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입된 것으로, 외국에서 출판된 엠블렘 서적과 색 상징에 관한 논문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국에서도 일반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16세기 말기의 복식 특히 엘리자베스 시대의 복식은 과장되고 지나치게 장식된 화려한 복식으로 이해되어져 왔지만, 본 연구는 이 화려한 복식요소의 이면에 내재된 상징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화려한 표면 장식이 장식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착용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음을 밝혀보았다.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에는 순결한 처녀로서의 상징-꽃, 진주, 여과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신중함과 지혜의 상징-뱀-, 영원한 젊음과 새로움의 상징-불사조-, 헌신적인 영국민에 대한 모성의 상징-펠리컨-, 군주로서의 전지전능함

과 분별력의 상징-눈과 귀- 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왕이 자신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서 단순한 치장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복식요소에 도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의복의 소재에 있어서는 특별한 상징은 보이지 않는다. 주된 의복의 소재는 벨벳, 브로케이드, 린, 사, 새틴 등으로서 소재에 따라 다른 표면장식 기법이 사용되었다. 검정색 벨벳에는 진주장식을, 흰색 린에는 black-work를, 흰색 새틴에는 trellis-work와 보석장식 혹은 그림을 가함으로서 각 소재에 가장 효과적인 표면장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상징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표면장식 기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복의 표면장식 그 자체보다 장식을 이용하여 상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 여왕의 의복에 사용된 흰담비 혹은 흰 담비털은 순결과 공평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색에 있어서는 흰색과 검정색의 사용 혹은 흰색/검정색의 배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당시의 색 상징에 의하면 흰색은 순결, 겸손, 신뢰를 검정색은 비탄, 절제,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흰색/검정색의 배색은 순결,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흰색의 순결과 검정색의 불변성(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왕의 바램을 상징), 흰색/검정색의 순결의 상징을 자신의 의복색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흰색/빨강색의 배색 등 강렬한 배색이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상징이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여왕의 개인적인 선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요소의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복식의 착용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고, 당시 복식의 화려함을 단순한 치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기호이며 또 다른 차원의 의미로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요소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복식요소의 상징성으로까지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연구로 복식요소 뿐만 아니라 복식형태에까지 그 연구범위를 넓혀 요소와 형태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 여기에서 도출된 상징성을 16세기 일반인의 복식에도 대비

해 봄으로서 16세기 복식에 내재된 상징성의 일반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Arnold, Janet(1988). Queen Elizabeth's Wardrobe Unlocked. Maney.
2. Arnold, Janet(1995). Patterns of Fashion: 1560~1620. Drama Book.
3. Ashelford, Jane(1988). Dress in The Age of Elizabeth I. B. T. Batsford.
4. Ashelford, Jane(1996). The Art of Dress. Abrams.
5. Badawi, M. M.(1981). Background to Shakespeare. Macmillan.
6. Black, J. Anderson, Garland, Madge(1997).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1. 자작아카데미.
7. Breward, Christoper(1995).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 Press.
8. Encyclopaedia Britannica CD(1997).
9. Furguson, Wallace K.(1948). The Renaissance in Historical Thought: Five Centuries of Interpretation. Ams Press.
10. Hearn, Karen ed.(1995). Dynasties: Painting in Tudor and Jacobean England. Tate.
11. Holmes, Martin(1969). Elizabethan London. Cassell.
12. Hotson, Leslie(1964). The First Night of Twelfth Night. Hart-Davis.
13. Linthicum, M. Channing(1972). Costume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Contemporaries. Hacker Art Books.
14. Morgan, Kenneth O.(1994). 영국사연구회 편.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아카데미.
15. Razzell, Peter ed.(1995). The Jpurnal of Two Travellers in Elizabethan and Early Stuart England. Caliban Books
16. Strong, Roy(1963). Portraits of Queen Elizabeth I. Oxford Univ. Press.
17. Strong, Roy(1969). The English Icon: Elizabeth and Jacobean Portraiture. Routledge and Kegan Paul.
18. Strong, Roy(1995). The Tudor and Stuart Monarchy: Pageantry, painting, Iconography. Boydell.
19. Strong, Roy(1996). The Story of Britain. Fromm.
20.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1991). 시사영어사. 英韓大辭典, Random House Inc.
21. Wilson, J. Dover(1949). Life in Shakespeare's England. Pelican Books.